

가경자 최양업 오페라

길 위의 천국

대본 류한영, 고연옥

“우리가 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느님 자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뵙게 될 하느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서한)

주요 인물

최양업 토마스 *)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례 마리아

최희정 야고보

선장

메스트르 신부

밀사 1

밀사 2

마을 이장

바르바라

바르바라의 어머니

바르바라의 오빠

바르바라의 정혼자

양반 교우

포도청 관리

소년 최양업 **)

소년 김대건

소년 최방제

그 외

동생들, 마을 여인들, 포졸들, 외교인들, 선원들, 교우들

*) 제1 최양업 신부님 역할 (성악가)

제2 최양업 신부님 역할 (연극 배우)

**) 3명의 15세 소년들은 교우촌 장면에도 출연함

무용수: 소년 무용수와 선원들 무용수들.

[길 위의 천국] 가경자 최양업 오페라

서 주 (Prologue) (1836년 초, 경 계 도 평 접 리 프

최 경 환 앞 이 서 닐 어 온

그 뒤 로 아 업 쉼 은 이 성 멘 러 세 최 와 장 그 업 이 되고 고 보 동 와 생 . 닐 뒤 이 를 따

최경환: 긴 여정을 앞둔 우리 양업 토마의 걸음이 무겁구나.

먼 훗날 사제가 될 우리 양업 토마.

너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많은 신자들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라.

(꿈속에서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최양업: 아버님, 어머니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겠지요?

아버님, 어머니님!

이성례: 다시 만나야지, 우리에게 이별은 없단다.

양업 토마야, 넌 다시 이곳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올 거야

사제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야고보: 형님, 나 매일매일 형님을 기다리며 기도할게요.

최경환: 자, 이제 너 홀로 가야 하는 길이다.

어서 떠나거라. 신부님께서 기다리신다.

동포들의 영혼을 구하는 사제가 될 양업 토마!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고 기뻐하여라!

(어린 최양업, 땅에 엎드려 부모님께 절을 드린다. 그리고 뒤돌아 정면을 응시한다.)

어린 최양업: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먼 길을 향해 떠나는 길목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길

다시 만나기 위해 이별하는 길

홀로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이 연약한 저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사라진다.)

1장 세 명의 신학생들

안무: 소년 최양업이 편지를 쓰고 있는 최양업 신부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움직임(Dance)으로 표현한다. (소년 soprano 는 물러가고 소년 무용수가 소년 최양업과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춘다)

1장 가)

중국의 변방지역인 내몽고 마가자 교우촌 뒷산 한 무덤 앞에서 소년 셋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한 장의 삽화처럼 그린 그림이 화면에 뜬다.

(자막) 1837년 2월 내몽고 마가자, 초대 조선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무덤 앞

어린 신학생 최방제, 김대건, 최양업의 3중창 3명의 소년 *trio soprano: solo* 2중주, 3중주, 노래와 *sprechgesang*:

세상 가장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천상의 빛을 전하시려고 쇠잔한 몸 이끄시고 이국땅에 오신 주교님

당신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었고
고통과 고뇌의 십자가만 있었네

주님께서 여기 이곳에서 주교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으니
이제 지친 몸 편히 쉬소서

당신의 희생을 따르며 착한 목자 되고자
앞드려 작별 인사드리니
먼 길 떠나는 저희를 축복하소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고통과 고뇌의 강을 건너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조선의 교우들을 돌보는 사제가 되게 하소서.

최방제와 김대건은 사라지고 최양업만 무대 위에 홀로 남는다.

부제가 된 어른 최양업(22세)이 들어와 소년 최양업 곁에 선다. 무대 전체가 어두어지면서 소년 최양업은 잠시 무대 뒤로... 양업 부제만 남아있다.

부제 최양업이 땅에 앉아 바위를 책상삼아 편지를 쓴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 다시 쓰다. (무대 한편의 희미한 그러나 강조하는 spotlight 안에서)

무대 다른 편에서는 여인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서 무대가 전환되며 제2장 이성례 마리아 시작되기 전의 다리 역할하는 장면+음악>, 계속 편지를 쓰고 ...

양업 토마 부제품 받음: 1844년 12월 10일경

1장 나)

소년 양업이 다시 무대에 살그머니 나타나며 기도문을 외우듯이 또는, 춤을 추는 듯 움직이며 무대 가운데로 전진한다. 즉 편지를 쓰느라 움직이지 않는 부제 양업의 모습과 서서히 몸을 움직이며 춤사위로 들어가는 소년 양업이 희미한 불빛(별빛, 달빛) 아래에서 펼쳐진다. 부제 양업이 서서히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실내악 음악→

부제 양업의 비통한 solo Bariton (소년 양업의 믿음이 가득한 춤사위가 대조적이다):

(심양에서 1846년 12월 22일) (세번째 서한)

지극히 공경하는 스승님께

이제야 고향땅으로 동포들에게 가는 길

얼마나 오랫동안 타향에서 떠돌았던가요.

부모 형제 따라 갈 공훈도 세우지 못한 신세

이번에는 부디 내 사랑하는 조국에

도달할 수 있게 기도드려 주소서.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토마 양업이 올립니다.

일단 암전되며 그 상태에서 다음 것들이 펼쳐진다:

위의 Text 로 Gespräch Gesang (말하듯 노래하는 형식)이 흐르는 동안 멀리서 떠들썩 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들리며... 무대가 제2장으로 가까워질수록 여인들의 소리가 커진다. 동시에 무대장치가 정면으로 향하면서 제2장 마리아 이성례가 부르는 <자장가>가 선명히 들린다.

무대 변화는 모두가 다 보이도록 무대 스태프들이 "감옥 광경" 무대를 끌어당겨 온다.

(소년 양업과 부제 양업이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퇴장하였다.)

추신:

1) 1839년 9월 12일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기해박해로 서울에서 옥사 순교

2) 1840년 1월 31일 모친 이성례 (마리아) 서울 당고개에서 참수로 순교

3) 양업 토마가 22세 때인 1843년 3월 부모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됨

두 번째 서한에서 (1844년 5월 19일) 부모의 순교를 아시고 서한을 쓰셨으나...

개인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셨음.

4) 1846년 6월 5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체포되어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심

2장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와 막내아기 스테파노

커다란 감옥에 여자 죄수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서 느린 듯 하지만 숨도 안 쉬는 듯 빠른 속도로 자기들 목소리를 낸다. 죄수복을 입은 여인들과 보통옷을 입은 여자 죄수들이 섞여 있다. 누가 천주학을 믿는 이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된다.

여성 합창 (빠른 템포)-여러 여자 죄수들의 빠른 대화의 속도임:

어떡헌데유, 저렇게 울고만 있고... 애기 재운다구 흥얼거리는데...

애기 먹일 젖이 온통 말라 있으니까

저렇게 엄마 가슴에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

에미가 먹은 게 없는데 어찌 젖이 나오는데유

보고 있는 나도 가슴이 메어지네유. 천주학이 무엇인지...

지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천주님을 믿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데유

이봐요 애기엄마. 정신 좀 차려요. 실성할까 겁이 나네유.

무언 소리. 벌써 넘어갔어유. 제 정신이면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천주님 믿음을 못 버린다고 하겠시유?

애 엄마, 천주학 모른다구 하면 금방 세상이 달라질텐데 말이지.

아이구 참 부럽네. 이렇게 천주님을 믿는 마음이 강해서 어떤 강압도 두렵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성례 마리아 Mezzo Sop.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한참 흐느끼며 자장가를 부른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성 합창 (죄수들, 신자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하느님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대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마태 10,19)

이성례: 예수, 마리아, 요셉! 저에게 자비를...

구원의 기도 (solo 이성례와 여성합창 unisono):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 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 하소서” (반복)

몇 명의 여자 죄수들이 이성례와 아가를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내보낸다.

꿈속을 걷는 듯 밖으로 나온 이성례를, 옥리가 부축하여 들여보이는 커튼이 드러진 곳으로 인도한다.

관장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며 야단 법석이다. (관장이 악을 쓰는 소리는 안 들리고 행동만 형겁 막(커튼)을 통해서 그림자 같은 형태만 보인다)

이성례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방법으로 관장과 대화를 이어간다.

(음악은 관악과 타악기가 울린다) 커튼이 걷히고 이성례가 나온다. 이성례의 고향소리에 모두 놀란다.

금관 + 타악기군 + Mezzosop. solo / Vn. solo 반주가 이성례를 따라가며 연주:

아이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예수니-임, 이 죄인을 어찌하시려고 저를 버리시나요!

인자하신 하느님, 천상에 계신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려 작정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옥중에서 나가려 한 것은 이 죄인의 한 짓이오나... 어찌 그렇게 약하디 약한

마음을 주시었나요!

예수, 마리아, 요셉! 나는 옥중에서 못 나가오.

내 핏덩이 아가랑 옥중에서 내 사랑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다른 세상으로 갈라요.

아이구- 하느님, 인자하신 하느님, 주님, 보소서. 죽어가는 아가를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요! 저는 주님의 아들인
이 아가를 살려야 하온데... 그리하여... 그리하여...

기운이 지쳐 쓰러지는 와중에 아가를 보면서 자장가를 부르며 옥중 문을 나선다.

여성 합창이 점차 마치 장송곡처럼 변해가는 자장가를 부르며 중간 막이 내려진다.

이성례 마리아는 거의 실성한듯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구름 위를 걸어가듯이 걸어나간다.

어느 옥리가 도와주려는 듯하다가 가까이 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보고만 있다.

이성례가 걷는 모습은 '삶'을 선택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마지막 길을 걸어가듯이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이 둘러싸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죽는 일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가.

*이성례 마리아는 살아 있는 죽음 속에서, 살아갈 시간과 공간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으니
아무도 접근을 못한다.*

*앞으로 보여 질 제7장에서는 이렇게 걸어나간 모습보다 더 힘들게 보이는, 보다 더 초췌한 옷을
걸친 모습으로, 하지만 강하고 비장한... 그러한 중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무대
위로 등장한다. 죽은 아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무대 장면이 갑자기 변한다. 다음 3장에서는 전체 현악 orchestra가 full로 연주되고, 점차... 관,
목관, 금관이 첨가된다. (다음 무대에는 거센 바다, 높은 파도... 작은 선박이 떠 있다)*

3장 사제 수품과 귀국 실패

3장 가)

사제 서품식 (1849년 4월 15일)

혼성 합창: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름에 응답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구속하여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도록...
 저를 죽게 하여 더 큰 부활을 얻게 되도록...

지극히 공경하올 마레스카 주교님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나이다.

1849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아직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지극히 너그러우신 하느님의 자비로,

지극히 감미로우며 영예로운 짐이여!

원하오니 저를 아끼지 말고 쓰시기를.

저의 땀과 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고통받는 땅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소서.

3장 나)

(자막) 1849년 5월. 백령도 부근 (무대는 바다가 출렁이고 파도가 높다)

세찬 비바람 소리, 함선 위, 최양업 신부와 선장(Tenor), 5-6명의 중국인 선원 (이 선원들은 거센 파도와 싸우는 중 일하는 모습을 안무를 통해 움직임/춤으로 표현할 것):

최양업: 이대로 돌아갈 순 없소!

어서 나를 내려주소!

선장: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시오?

겨우 목숨을 건지셨소.

최양업: 조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내려만 주면 내 힘으로... 헤엄쳐 갈 수 있을 듯한데...

선장: 잘못된 지도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왔소.

천주교 신자들을 잡겠다고 곳곳에 포졸들이 깔렸소.

프랑스 선교사들의 비참한 죽음을 생각하시오.

다음은 기약하시오.

최양업: 벌써 7년째 실패하고 있소.

안 되오,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최양업, 바닷물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선장, 최양업을 끌어 올린다.

선장: 오랜 세월 동안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조선 동포들에게 죽어서 가시겠소?

때를 기다리시오!

하느님께선 그대를 귀하게 쓰실 것이며,

다음에는 반드시 고국땅에 닿게 될 것이오.

3장 다)

최양업 신부가 기도하는 동안 달빛, 별빛 같은 spotlight 는 신부에게만. 선장과 선원들은 조용히 배에서 내려 바닷물을 걸어서 퇴장한다.

최양업: 주님, 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다 속 깊이 던져주소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데 소홀하였고,

인간적인 희망에 매달렸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실패작.

오직 당신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자 저를 바치오니

주님, 부디 거룩한 뜻대로 저를 동포들에게 보내주소서.

저 곳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저 땅에,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4장 조선 입국과 다시 만나는 기쁨

4장 가)

(좌막) 1849년 12월, 중국 봉황성 변문마을, 압록강변

최양업 신부와 매스트르 신부, 그리고 밀사1이 함께 걸어온다.

밀사1: 보시오, 신부님들, 이 압록강 저 편이 바로 조선 땅이요.

매스트르: 오! 압록강이여, 드디어 조선 땅에 가는군.

최양업: 매스트르 신부님, 제가 13년 전 고향을 떠나오던 그 길이지요.

밀사1: 저기, 신부님들을 모시고 갈 밀사가 오고 있네요. 여기요! 여기!

밀사2, 몸을 낮추며 다가온다.

밀사2: 한밤중인 데도 경비가 철통같소. 관문을 통과하기란 불가능하외다. 그만 돌아가시오.

최양업: 아니 되오. 이 흑한과 광풍에 경비들이 곧 들어가지 않겠소? 부디 우릴 데려다 주시오.

매스트르: 부탁하오, 우릴 데려다 주시오.

밀사2: 두 분 모두 가는 건 위험하니, 한 분만 가지지요.

최양업: 아니 되오. 우린 함께 가야 합니다

밀사2: 함께 죽으시겠소?

매스트르: 내가 양보하지요. 토마 신부여, 부디 귀국에 성공하여 동포들을 만나시오.

최양업: 존경하는 매스트르 신부님, 꼭 다시 뵈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밀사2: 어서 가시지요.

매스트르 신부와 *밀사1*은 손을 흔들며 멀어진다.

최양업 신부와 *밀사2*는 함께 걷는다.

최양업: 하느님, 전능의 손길 펼치소서!

12년 전 저의 동료 최방제는 위열병으로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가장 친애하는 동료 김대건 신부는 3년 전 순교하여 조선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인도하소서, 당신의 전능으로!

저의 생명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니 받아 주소서, 좋으신 하느님!

4장 나) (국경을 통과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음악과 연출/장면으로 표현할 것 임.

혹독한 추위와 극도로 조심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밀사2: 참으로 천주님이 도우셨소.

혹독한 추위에 경비들이 모두 철수한 모양이요.

신부님! 마침내 조선땅에 들어오시었소!

최양업: 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땅에 빛이 되는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어둠속을 헤매는 백성에게 빛을, 구원의 빛을! (이사 9,1 참조)

잠시 멀리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곧 교우촌 삶의 모습, 일하는 모습의 장면이 들어온다.

(저 멀리 다른 방향에 있는 다른 교우촌의 광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어른들은 일을 하고

어린이들이 놀고, 한글 공부, 성경공부를 하는 광경)

4장 다)

(자막) 1950년 여름, 충청도 진천 교우촌.

최양업은 그리운 동생들과 만난다.

동생들: **Miserere nobis pacem! miserere nobis!**

형님, 신부님!

저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우애 좋은 형제로 살며

날마다 형님을 기다렸어요.

무사히 성품을 받아 조선에 목자로 오시길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끼니를 거르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한번도 한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miserere nobis pacem!

(동생들이 서로 최양업 신부 주위를 맴돌면서 서로 먼저 얘기하려고 한다 기쁨이 가득한

눈물나게 기뻐하는 장면) - 형제들을 만나면서 기쁜 최양업 신부 얼굴.

5장 교우촌을 방문하는 목자

(자막) 1850년 10월 충남 부여군 도양골

정다운 음악과 연출로 행복한 무대가 등장하는 대목임.

짧은 간주곡. 최양업 신부는 한편에서 편지를 쓰고, 다른 무대 쪽에서 교우들이 빠른 걸음으로 또는 천천히, 무대 가운데로 모여든다.

공소 방문 중인 최양업 신부와 교우들이 기뻐하며 인사를 드린다.

최 신부가 그들을 만난다. (무대 위에는 이미 제2의 최양업 신부가 등장한다.)

제1 최양업 신부(성악가)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교우들과 만나고 있다. 제2 최 신부(배우)는 계속 편지를 쓰고 있다. (두 최양업 신부의 역할이 다른 이유는 spotlight 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서 장면이 빨리 바뀌어 지기 때문이다. 전 오페라를 통해서 두 분의 최양업 신부 역을 더 생각 할 것이다. 한 무대에서 각각 다른 시간 대의 상황이 진행될 경우, 신부님께 환호하며 기쁨에 넘치는 교우촌, 성가를 배우는 교우들, 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교우들 등 여러 교우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5장 가)

여자 교우들: 좋으신 하느님, 우리에게 사제를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느님!

간절한 기도와 남몰래 흘린 눈물 아시는 우리 하느님!

모진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간직해온 믿음과 소망으로

사제를 통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이 시간

영혼의 구원을 청하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최양업 (제2): 마침내 조선에 도착하여 스승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지난 6개월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를 두루 다니며

공소 방문을 하였습니다.

최양업(제1)에게 말한다.

여자 교우1: 내 나이 열다섯에 천주교를 알고 집에서 도망쳤어요.

여자 교우2: 12년간 남편이 집에 가봤어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자 교우들: 오랜 세월 동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서로를 찾아내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우리 생에 사제를 뵈올 날이 왔습니다.

부디 저에게 성사를 주소서.

5장 나)

그때, 몽둥이를 든 외교인들이 집을 둘러싼다.

최양업 (편지를 쓰고 있는 제2의 신부 역할 계속)

외교인들은 몽둥이로 집을 위협적으로 두드린다.

외교인: 이 도둑놈아 어서 나오지 못해!

서양놈들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선동꾼이다

외교인: 잡아 죽여야 돼. 퐁퐁 묶어 감옥으로 끌고 가자.

외교인들: 곧 포졸들이 올 거야. 네 모가지를 텅강 자를 거다

우리 조선과 조선여자들을 더럽히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는다!

교우들: 신부님, 어서 뒷문으로 피해 나가세요. 포졸들이 오고 있어요.

교우들: 꼭 다시 와주세요, 신부님, 우리 목자님

외교인들: 저 놈들을 잡아라!

외교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교인들을 찾아 밖으로 달려 나간다.

기쁜 교우촌 장면이 속밭이 되었다.

6장 천국을 그리워하는 바르바라

6장 가)

최양업 신부는 "사향가"에 음을 달아서 노래를 부르며 걸어간다.

(사향가 중에서 가사를 선택) 한, 두세 명의 교우들이 뒤따른다.

어화우리 벗님네야 우리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곳이 본향인고

복지로나 가자하니 모세성인 못들었고

지당으로 가자하니 아담원조 내쳤구나

부귀영화 얻었은들 몇해까지 즐기오며

빈궁재화 많다한들 몇해까지 근심하라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 중에서)

바르바라의 어머니가 공소집 쪽에서 실망한 표정으로 걸어온다.

무대는 바르바라가 머물고 있는 동굴로 전환된다.

동굴 속에서 기도를 올리는 바르바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바르바라의 뒤로 여신도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있다.

바르바라는 개인인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여성들을 함축한다.

바르바라의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들고 동굴 앞으로 온다.

바르바라는 "주여 어서 오소서" 혼자 조용히 노래를 한다.

(가사는 가톨릭 성가집에서 154 쪽. 노래는 작곡할 것임)

여자 교우들: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읍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시요,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의이시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1842년 4월 26일 첫 번째 서한)

바르바라: 어머니,

저를 성모 마리아의 딸로 여기소서

세상의 삶은 짧지만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보았지요

동정을 잃지 않고 그 분을 뵙길 원하오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길 바라오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하느님께선 당신께 의탁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 주신답니다.

(바르바라는 “주여 어서 오소서” 노래를 계속 한다)

바르바라 어머니: 벌써 몇 달째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행복하다니

아가, 넌 죽어가고 있어, 제발 이 어미에게 돌아오너라.

(2절을 노래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쓰러진다)

바르바라: 어머니, 성사를 받고 싶어요. 신부님을 뵈었나요?

바르바라 어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늘 방금 떠나셨다고.

바르바라: 아... 성사만 받을 수 있다면...

바르바라 어머니, 보따리에서 화려한 결혼 예복을 꺼내 보여준다

바르바라 어머니: 내 손으로 너의 혼인 예복 만들며 기도했단다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영원히 널 지켜주기를.

바르바라 여자 교우들: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의 행복이 아무리 달콤해도
내가 만난 영원한 사랑과 바꿀 수 없어
아름다운 혼례복은 죽음의 빛깔로 물들었다오.

6장 나)

바르바라의 오빠가 화가 나서 등장한다.

바르바라 오빠: 조선의 여인이 혼인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깃 눈에 띄지도 않는 서양귀신 때문에 가문을 저버린다고?
짐승처럼 동굴에 박혀 사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
내 오늘은 반드시 널 끌어낼 것이야!

바르바라 여자 교우들: 나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

조선의 여인이란 올가미로 묶지 마세요
나는 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요
그곳이 동굴이든 맨바닥이든 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요.

바르바라의 정혼자가 몽둥이를 들고 온다.

정혼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아내 될 여자가 서양귀신에게 흘러 동굴에 처박혀 있다니!
저런 여자에겐 혼례도 필요없지,

당장 데리고 들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겠소.

바르바라: 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여자 교우들: 오 주님, 오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전능으로

저희를 들어 올려 주소서

잔인한 밤을 뚫고서 천국을 만나게 해주소서.

바르바라,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온다. "주여 어서 오소서" 비틀거리며, 노래를 하며 밝은 곳으로 나온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곳에서 바위에 앉아.

6장 다)

바르바라: 내 생이 저물어 가요, 짧았던 인생이 사라져가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온 고통과 행복의 나날이...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을 만나야 해요

날 천국으로 인도해주실 분을.

최양업 신부는 바르바라에게 급한 걸음으로 다가온다.

최양업: 이제야 내가 왔소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바르바라여!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바르바라: 저의 유일한 고통은 주님과 성모 마리아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한 것뿐,

이 병든 육체를 떨어 버리고 천상의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받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만 바랍니다.

6장 라)

바르바라 solo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별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 산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최민순 시, “두메꽃”)

6장 마)

최양업: 주님, 바르바라의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부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세상의 사악함이 이 여인의 정신을 해칠까 봐,

시대의 위선이 총명을 흐리게 할까 봐,

바빠 하늘로 거뭇을 받았으니.”

간주 (바르바라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최양업 신부)

최양업: “비록 짧은 생애였으나, 수많은 세월을 채웠도다!

바르바라여, 천국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바르바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조용히 숨을 거둔다. (암전)

7장 순교자들

무대 한편에는 제2 최양업 신부가 편지를 쓰고, 중앙 무대에서는 순교자들의 고난이 펼쳐지고 있다.

7장 가)

제2 최양업은 (무대 한편에서 바위를 책상으로 삼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제2 최양업: 지극히 공경하옵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하느님의 자비로 오랫동안 서원으로 맹세했던 바

제 부모님과 교우들의 순교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막) 1839년 기해박해: 1839년 9월 12일 부친 최경환 기해박해로 서울에서 목사 순교.

최양업: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과거엔 부유하였으나 스스로 궁핍과 재난을 받아들여...

(중앙 무대는 최경환 집 안 마당 광경이다)

최경환: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비탄에 잠겨 있나!

모든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세상 일이 하느님의 깊은 안배로 되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지요.

포졸들이 등장한다.

포졸들: 주인 있는가? 여기가 천주학생이 집이라지!

최경환: 왜 이리 늦었습니까?

식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떠나도록 합시다.

포졸들: 저들을 오랏줄로 단단히 묶어라.

최경환: 어화 벗님네야, 오늘의 이 행군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계속 제2 최양업)

최양업: 이성례 마리아는 남편 최경환과 다섯 아들과 친척 들 40 여명과 함께 오랏줄에 묶여

서울로 가는데 큰아들 희정이가 열 네 살, 선정이, 우정이, 신정이,

막내 스테파노 겨울 두 살.

(구경꾼들이 이 행렬을 구경 하면서 ...)

구경꾼: 이 몹쓸년아! 에미란 것이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죽음을 자청하러 가다니!

최양업: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갇난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고문이 시작되는데,

판관 등장, 날카로운 태장소리

판관: 조상님이 주신 귀한 목숨을 고작 서양귀신에게 맡길 것이냐?
다시는 안 믿겠다 한 마디면 죄를 사해주리라.

최경환: 이 세상에서 자기 주인에게 불충한 것도 죄이거늘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천주님을 어찌 배반하라 하오!

최양업: 주뢰에 팔과 다리가 어그러지고
곤장을 맞아 온몸의 살이 멩그러지고 피범벅이 되었는데

포졸들: 너와 네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왜 천주님은 가만 계신다더냐?
아직도 천주가 좋다면 우리에게 전해 보아라.

최양업: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마치 잘 차려진 훌륭한 잔치에 초청받은 듯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전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태장소리, 비명소리

7장 나)

(최경환은 옥 중에서 지독한 고문을 받은 후 다른 교우 들과 함께 기도 하면서, 가상칠언에 대해 해설한다.)

합창: “주님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낮 열두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최경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마르 15,34)라고 부르짖으셨소.

이 말씀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오.

(번개가 친다) 다음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진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목마르다” (요한 19,28)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루카 23,34)

“다 이루어졌다” (요한 19,30)

최양업: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처참한 고문을 당하시어 더 이상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마지막 있는 기운으로 기도하고 나서...

최경환: 옆에 있는 교우에게

목이 마르오, 물 좀 주시오.

최양업: 이렇게... 옥중에서... 서른 여섯의 나이로...

천상에 계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p.s. 7장 나) 동안에 합창 계속.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무대 변화)

7장 다)

(1840년 1월 31일 모친 이성례 마리아 서울 당고개에서 참수로 순교)

최양업: (자막에 쓰여지는 해설)

저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2살된 막내 아들 스테파노가 옥중에서 다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당하다가 자식에 대한 애정에 약해져 항구 하지 못하고 배교의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 집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맏아들이 마카오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배교를 취소하고 세차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끝까지 물리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851년 10월 15일 여덟 번째 서한 참조)

이성례: (옥중에서)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저의 참상을 굽어보소서
 이 처참한 육신과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당신께 두 아들을 바치옵니다
 큰아이는 사제로, 막내아이는 죽음으로.
 부디 당신의 품안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최양업: 사형날이 다가오자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 당부하였으니

이성례: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여라
 어머니는 늘 너희들 곁에 있을지니.

최양업: 마리아는 다른 6명의 교우들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올라

서른아홉 살의 나이로 순교하셨으니...

야고보: 하느님, 우리 어머니 휘광이 단 한칼에 아프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길 큰 고통없이, 인자하신 하느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최양업: 부친 프란치스코의 시체는 친척들이 찾아 매장하였지만

모친 마리아의 시체는 한밤중에 실려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도 찾을 길이 없다 합니다.

순교자들(합창): 주님, 세상의 고통 끝나고 천국의 문 앞에 섭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가난하였고 함께 피 흘렸던 우리 주님,

이 땅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구원의 빛을 내려 주소서.

모두 천천히 퇴장하고 최양업만 남는다.

p.s. 7장 다) 동안에 혼성 합창과 여성 합창이 번갈아 계속한다.

8장 세상의 고난과 박해

교우들, 사향가(思鄉歌)를 부른다.

(자막) 1859년, 안곡 교우촌 (이 교우촌에서는 교우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 줄 것이다)

8장 가)

교우들: “어화우리 벗님네야 우리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곳이 본향인고
 북지로나 가자하니 모세성인 못들었고
 지당으로 가자하니 아담원조 내쳤구나
 부귀영화 얻었은들 몇해까지 즐기오며
 빈궁재화 많다한들 몇해까지 근심하라”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 중에서’)

양반 신자가 거들먹거리며 신도들을 뚫고 성큼성큼 최양업에게 다가온다.

양반(빠른 tempo 로):

양반으로 태어나 천주 신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오.
 조선 양반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아무리 가난한 양반이라도 죽으면 죽었지 일 안 해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나 좋은 데로 살아온 세월
 내 뜻한 바 있어 가문의 반대 무릅쓰고 성교 신자 되었더니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리 많소.
 친구도 못 만나, 놀지도 못해, 양반 체통에 흠먼지 뒤집어쓰고 천민들과 어울려야 해!

제1 최양업: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무식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천민보다 양반이
 천국에 들기 어려운 법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행복하여라. 가난한 이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오
 어떠한 삶이 가난하게 사는 삶인지...
 어떠한 삶이 “행복하다”는 삶인지.

양반: 난 내 명예와 재산 다 버리고 왔소.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

다른 교우: 내 옛 주인은 부유한 양반이신데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인자하신 하느님 품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시고
 전 재산을 우리 천민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소.
 함께 기도하시고 글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일을 하셨소...
 그분이야말로...

최양업: 그분이야말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시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끔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신” 분이시지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때, 한 교우가 달려온다.

8장 나)

교우(빠른 tempo 로): 신부님, 신부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외교인들이 몰려온다.

외교인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외교인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최양업과 교우들을 둘러싼다.

(최양업 신부가 한 교우와 함께 나무 숲 뒤로 숨는다)

외교인들: 곳곳에 숨어서 나라를 좀먹는 도둑놈들!

조선의 여편네들을 현혹해 남편에게 반역하게 하고

무지몽매한 남정네들에게 천주학이다 구원이다 자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씨를 말려버리자 마지막 한 놈까지 숨통을 끊어놓자.

외교인 무리 속에 있던 포도청 관리와 포졸들이 나온다.

포도청 관리: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천주교가 그토록 훌륭한 종교라면, 걸모양 아래 흉측한 음모가 숨어있지 않다면,

왜 서양 신부들이 비밀리에 들어와 왜 숨어 다니며 교리를 전파하는가?

서양은 군사나 무기 모두 강력하다고 떠벌리면서

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천주교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8장 다)

나무 숲 뒤에서

최양업: 하느님께 가는 길은 넓고 탄탄한 길이 아니오.

가시덤불과 거센 눈보라치는 밤, 가장 끔찍한 죽음까지도

늘 함께 걷는 길, 고난과 시련의 길

내 영혼을 구하는 길이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길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 중에도 한걸음 한걸음 당신께 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포도청관리: 모두 박살내어라!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겠다!

지금이라도 배교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외교인들과 포졸들이 교우촌을 부순다.

교우들, 그 속에 있는 성물들을 지키려다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

8장 라)

최양업(계속 나무 숲에서 독백): 공경하올 스승님께 편지 올립니다.

우리엔 머물 곳도 성물을 보관할 곳도 없어,

우린 영원한 나그네, 언제나 길 위에서 살고 죽으며,
 주님, 우리가 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느님 자비의 자녀들이 되기를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뵙게 될 당신을
 이 세상에서도 뵙게 되기를
 비록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조선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더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9장 길 위의 천국

1861년 6월 초여름, 산간 벽지의 가난한 촌.

집안에서 들리는 청아한 소리

9장 가)

교우들 합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네 나라이 임하시며

네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 하여 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성교공과”, 천주경)

(길 떠나는 최양업과 배웅하기 위해 나온 교우들. 깊은 밤 달빛이 유난히 밝다.)

9장 나)

교우: 언제쯤 우리에게 다시 와 주시겠습니까?

교우: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사랑을, 천국의 기쁜 노래를...

최양업: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때가 꼭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꼭 다시 만납니다.

교우들: 네, 꼭 다시 만납니다. 신부님, 경애하는 신부님!

최양업: 난 언제나 이 길을 따라오고 있음을 믿으시오.

합창: 미세레레 노비스! 미세레레 노비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구나” (요한 19,30 참조)

고통과 고뇌의 드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왔으니

언젠가 아프고 지친 발걸음 멈추게 하시리라.

최양업: 오늘도 내일도 길 위의 천국을 걷고 있지요.

합창: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은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마태 5, 1-12 참조)

최양업: 오늘도 내일도 길 위의 천국을 우리, 함께, 걷고 있지요.

추신: (다음은 예술 총감독, 연출가, 그리고 관계자들과 상의할 점입니다.)

서서히 막이 내리면서 동시에 Video 자막이 무대위에 뜬다.

합창 계속됨

합창이 계속되는 동안 달빛, 별빛은 서서히 여명으로 바뀌면서, 빛이 자막에 비추면서 다음

상황이 펼쳐진다.

최양업 신부 피곤한 몸을 이끄시며 묵묵히 산을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느린 걸음 또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신부를 뒤따르는 2 - 3명의 교우들.

최 신부의 땀방울이 video 그림이 되어 여러 공소의 장면이 나타난다.

점차 많은 교우들이 무리가 되어서 신부 뒤를 따라서 걷는다.

저 멀리 빛 이 남아서 비추고 있으면서 서서히 Video 자막이 사라진다.

<끝>